



# 光云電子高總同門會

제 21호

2015년 7월 15일(수) <http://www.kw00.net>  
139-875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1길24 예지관

전화(02)919-0522 Fax(0505)919-0522  
회장 : 류 희 근 사무국장 : 김 귀 중

## 2015년은 총동문체육대회 “종합우승 26회”

### 잔치집 분위기 그대로

▣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떠난 34회 동문들의 극성에 모든 시설이 설치완료 됐고, 손님 아닌 동문 맞이에 들어갔다. 금년부터는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생겼다. 풋살경기장 두면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정사각형의 형태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어 모양이 괜찮다는 느낌이다. 팬스레 걱정을 했다는 것이 기우였다. 각 기수별 텐트를 설치하고 보니 사각 형태로 설치된 모습을 학교현관에서 볼 수 있었다. 예년과 같이 운동장 위로는 만국기가 손짓 하듯

펼려지고 있었고, 학교건물엔 체육대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동문들의 이름이 기록된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협조하는 동문들이 늘어가고 있어 고무되는 분위기였다. 이번 대회는 행사 단상을 교단 아래 별도로 설치하고 양 옆으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텐트에서도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하기가 쉬웠다. 모든 것이 거둬지는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고, 민주 방식에 의한 여론 수렴과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가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관계기사 4,5면에 계속>

### 이번 대회는 외부인사도

▣ 지난해까지만 해도 총동문체육대회는 우리 동문들끼리 모여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해 왔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으나, 금년에는 색다른 맛을 구가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초대했다. 이는 우리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풍습에 의하면 잔치를 하면서 이웃에 알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저런 의미에서 금년에는 외부인사 초청을 했고, 노원구청장 김성환께서 참석했고, 노원갑의 이노근 국회의

원이 참석해 자릴 빛냈다. 김성환 청장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관내 있는 학교 동문행사에 참석해 영광' 이라고 했다. 다른 행사로 인해 늦게 행사장에 도착한 이노근 의원 역시 간단한 인사말로 동문회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하면서 인사를 마쳤다. 이렇듯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동문들과의 수인사를 나누면서 모교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갔고,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해 다양성 있는 홍보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 총동문회측의 계획이며, 입장이 라고는 것이다.

- 2면 광운논단, 광운전자만평 회보 활용하기 전자박물관 진행상황
- 3면 '광운80년사' 발행 과정얘기
- 4, 5면 총동문체육대회 이모저모
- 6면 충주·제천지역동문회
- 7면 13회 동문들 행사 맞이
- 8면 뉴욕동문들.../등산학교9기 졸업 골프동호회장배 골프대회 차한수(14회)동문 감사패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골프동호회장배 춘계골프대회  
참가신청 회장 양인석 (KW29) 010-8824-7382



<광운동문논단>

‘총동문체육대회에 담겨있는 참뜻’

매년 5월이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달이다. 갈등은 좋은 의미에서 갈등일 수 있기도 하거나 그렇지 않은 뜻에서 겪게 되는 갈등일 수도 있다. 그러나 5월은 온통 활기찬 일로 연결 되는 행사이니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 5월은 어린이날이 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으며, 스승의날과 최근엔 부부의날까지 생겼고, 총동문체육대회까지 있으니 행사로만 연결된 달이기도 하다. 더욱이 종교를 갖고 있는 동문들은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32년이나 체육대회를 멋지게 해결해 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내용이 발전적으로 진행 되고 있어 매년 5월이 가까워지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인 것은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

그렇다면 왜, 가장 행사가 많은 5월에 해야만 되는 것일까를 생각 안 해 볼 수 없다. 5월을 피해서 조금 여유롭고 시원한 계절에 하는 것은 어떻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셋째 주 일요일을 고집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다. 5월 20일이 모교 개교기념일이기 때문이다.

개교기념일은 학교가 문을 연 날을 기념하란 특별한 규정은

없다. 학교에서 적당한 날짜를 잡아 기념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학교가 문을 연 날은 5월21일 월요일로 추측되는 것이 광운80년사를 편찬하면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20일이었을까? 화도선생은 1899년4월11일에 태어나셨다. 당시에는 온 국민이 단군왕검의 즉위년을 기념으로 하는 禮紀에 음력을 사용할 때였다.

그러던 것이 서양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예수의 탄생을 원년으로 하는 西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바뀌었다. 따라서 화도선생의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20일인 것이다.

그래서 개교기념일을 5월20일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으며, 5월 셋째 주 일요일이면 개교기념일을 전후한 날이기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5월 셋째 주 일요일을 택해 설립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모든 동문들이 체육대회란 이름으로 모여 행사를 하는 것이고, 화도선생 앞에 헌화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화도선생이 왜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육영사업의 길로 갔는지 광운80년사에 기록된 참뜻을 생각하면서 체육대회에 임한다면 동문들 사이가 더욱 가깝게 다가오는 느낌을 느낄 것이다.

광운전자만평

김형태 화백

총동문체육대회5월셋째주일에 하는이유  
화도선생님의 양력생신이 5월20일이므로  
(숭고한뜻을 기리며....)



“총동문회보(本紙) 활용하기”

동문회보는?

회보가 언제, 어느 때 발행되는지부터 밝혀보자. 회보는 1년에 총 3회 발행하고 있다. 우선 신년호를 발행하고 있다. 신년호는 전년도 12월10일쯤 기사를 마감하고, 중순경에 배포되고 있다. 그리고 4월 초에 총동문체육대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사로 마감해 4월말에 발행한다. 다음은 체육대회 결과 기사와 휴가시즌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기사로 7월 중순에 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발행 되는가? 동문들 제보 또는 투고에 의해 기사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제보나 투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각기수별로 귀동냥 또는 카페를 방문해 기사거리를 찾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편집출판위원회의 바람이며, 22호부터는 기사가 넘쳐나기를 기대해 본다.

친구 또는 동문찾기

총동문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따금 올라오는 글 중에 이런 글이었다. “친구를 찾습니다.” “선배를 찾습니다.”

향학을 함께 불태웠던 동창 또는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잊지 못할 사연에 얽혀 있는 선·후배와 연락이 끊겨 애태우는 글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가 거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왜일까? 이유는 그렇다. 홈페이지(http://www.kw00.net)를 이용하는 동문이 극히 제한적인데 있다고 본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많은 동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다. 그런데 각기수별 임원조차도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 메아리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각 기수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지에도 간단한 사연을 담아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게재한다는 것이다.

정보 또는 소식전하기

총동문회80년사를 제작하기 위해 취재하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 됐던 것이 동문끼리 정보 교환이 너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많은 동문이 공유하고 대처했다면 어렵게 얻었거나 탄생시킨 것들이 사장되는 않았을 것이라 아쉬움이 있었다. 어차피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고, 구입할 의사가 있었던 물건이라면 4만2천여명이 넘는 동문이 하나씩 구입을 해도 상당한 숫자가 나오며, 여기에 형제 또는 이웃까지 가세한다면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 단순 계산만 해 봐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어떤 것이 되었건 사연을 담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본 회보에 게재함은 물론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조직을 이용해 정보를 널리 전파시킬 것이다. 가족들의 시나수필도 가능하다.

가칭 “전자박물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

지난해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오던 가칭 “전자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동문 여러분께 1년 동안 협조를 구해 왔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증품이 들어 왔으며, 어떤 물건들이 들어 왔는지 궁금할 것이다.

사실 그대로 밝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하다. 하지만 실망하지는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시작 단계부터 넘쳐날 정도로 많을 것이라 기대하질 않았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동일한 물건을 쌓아 놓고 전시하는 곳이 아닐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박물관 성격에 맞는 전시품을 접수 받아 진열되기를 기다리기에 성급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통신수단으로 사용했던 일명 삐삐와 휴대용 텔레비전, 노트북, 카메라 등이 접수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좋은 소

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적은 숫자에 불과 하지만 기증품에 맞는 설치대를 준비할 것이고, 전시에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미 이사를 하거나 살림살이를 정리 하면서 고장 났거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처분 했다는 것이 한결같은 얘기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4만2천여명이 넘는 동문 중 일부만의 얘기였고, 나머지 동문들만이 참여를 한다면 기증품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을 수 있다.

또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나 문이 개방 되어 있어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전시품이 있을 것이고, 10년 후 쯤엔 엄청난 기증품이 전시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웃이나 친지들로부터 나오는 오래된 전자통신 관련 제품을 눈여겨보거나 취지를 평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다. 열 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보태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된다는 뜻으로서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쯤은 도와주기 쉽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전자박물관 설립에 동참합시다. 지금까지는 광운80년사 발행과 총동문체육대회로 인해 크게 관여치 못했지만 이제는 동문 여러분이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나 기꺼이 응할 것이다.

모교가 전자통신 분야의 선두주자로 지금까지 자릴 지켜 왔듯이 앞으로도 부동의 선두자릴 지키기 위해선 동문 여러분의 관심여하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리는 것이니 각기별 임원께서는 동창여러분께 주지 시켜 주실 것과 궁금한 사항은 총동문회로 연락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광운80년사” 발행과정 이야기

### 처음 시작은, 망망대해 같은 상태에서...

광운80년사 발행 결정이 되고 처음 맞이한 입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기분이었다.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은 어디서부터 취재가 돼야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였고, 숭고한 모교 역사를 짧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가였다.

고민 끝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입장 이었고, 기분이었던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다.

광운80년의 시작은 1934년 5월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무선강습소부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무선강습소 없이는 광운80년의 역사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무선강습소와 관련된 사료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을까?

학교에도 아무런 자료가 없었고, 교육청에도 없었으며, 국가문서보관소에도 없었다. 설립하고 14년간에 있었던 아무런 근거나 흔적이 없었다. 더욱이 설립자 화도선생도 타계한지 오래된 상황이니 막막했던 것이 이해될 것이다.

### 뜻있는 곳에 길이 있어?

처음으로 화도선생 묘소를 찾았다. 비문이나 묘소 주변에서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서였고, 당신의 과거를 지금부터 조사할 테니 도와주십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비석에는 도움이 될 만한 문구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잘못된 곳만 눈에 들어왔다.

무거운 발길을 공관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도선생의 유품 일부를 보면서 다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창녕조씨 족보를 볼 수 있었고, 화도선생의 뿌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무선강습소와 조선무선공학원과 관련된 자료는 그 어디에서도 눈에 안 들어왔고, 고민만이 밀려왔다.

### 타교 흉내 내선 안 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에선 자신들의 모교 역사를 어떻게 정리 했을까가 궁금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타교 校史를 볼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스러웠다. 물론 명문이라는 학교 몇몇은 방대한 자료가 있어 훌륭하게 제작 됐지만 대개의 학교는 왜 만들었을까 의문이 생길 정도였다.

그래서 원칙을 세웠다. 절대로 남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취재하고 편집을 하는 중간에 결눈질 안 하고 생각했던 대로 진행했다.

### 묵묵히 일해 온 동문들

우리 동문이 4만2천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조선무선강습소와 조선무선공학원까지 포함 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림잡아 계산해 본다면 18기까지 수료했고, 한 기수에 두개반이 있었다고 하니, 20명씩 두개반 18기면 720명이 된다. 그러나 현재 파악된 숫자가 7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동문 여러분은 우리 동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동문들은 훌륭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해 온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기술자들이었던 것이다. 기술자는 짧은 생각이나 유혹에 흔들림 없이 주어진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우리 동문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사회생활을 이어왔다.

그래서 전자통신 분야의 사회 일원이나 군에서 광운인을 달리고 있으며, 이 시점이 멀리 조선무선강습소를 수료한 동문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뿌리의 근원은 깊은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광운8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얻은 느낌이며, 확인한 현실이기에 동문 여러분께 알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자부심과 긍지 생겨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과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자부심이라 하고, 긍지라 한다.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단어로서 가슴을 활짝 펼 수 있고,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세울 수 있는 힘이 절로 생긴다는 의미다.

많은 동문은 아니지만 이런 저런 뜻을 모르고 자부심과 광운인의 긍지를 못 갖고 있는 동문이 더러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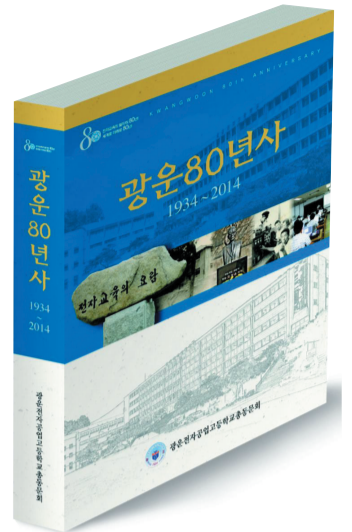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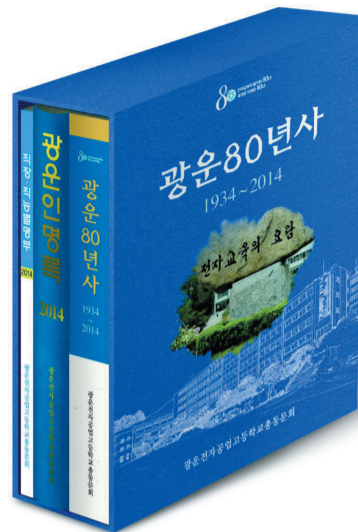
설립자 화도선생의 인생철학을 조금만 이해를 하면 달라질 것이다. 근거 없는 애기로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서 생긴 기우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

### 류희장의 열정에 감복

대개의 경우 총동문회장이 하고 있는 일들이 큰 틀에서 결정을 해주거나 대외적으로 얼굴 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우에 따라선 회식을 자주 하거나 유흥으로 동문들 마음만 아우르면 된다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경우 몇몇 동문들이 좋아 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동문회 발전을 생각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류희근 회장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당장을 위한 움직임 보다는 장기적인 포석을 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년에만 존재하는 학교가 아니고, 금년에만 동문회가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관점에서 주시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며, 매사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미래와 접목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광운80년사' 발행에서도 그런 의중이 역력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장으로 자리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시간 투자로 미래의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와 총동문회를 염두에 두고 일 처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문회의 발전을 조심스럽게 그려 볼 수 있었다.



### 생각지 않은 곳에서 깨거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은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착착 맞아 떨어질 때는 신명난 듯 일에 취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교공관을 두 번째 들렀을 때 화도선생의 생전 친필 메모를 발견한 것이 이번 광운80년사를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행운이었다고 본다.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화도선생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그 근거로 화도선생이 '광운상회'를 1925년에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메모에 의하면 25세에 설립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도선생 25세는 1923년이다. 이런 것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에 훌륭한 깨거라고 본다.

###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일념으로 취재 활동

광운80년사 본문에서도 언급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했지만 광운80년은 조선무선강습소부터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자료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이번 광운80년사를 만들면서 생존에 계신 몇몇 동문의 기억과 증언에 의해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전부다.

무에서 유를 창조 한다는 일념으로 취재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거를 찾아 자료를 확보 하기란 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이 자신의 입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 갑작스런 사고

취재가 끝나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간행위원장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다.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데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말았으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동문들은 광운80년사 발행과 관련된 문의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 병상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 따뜻한 마음의 찬사 보내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가운데 광운80년사가 탄생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동문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연락을 주었다. 설립자의 뜻을 담아 처음으로 탄생된 광운80년사가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 正誤表 만들기 위해 잘못된 오기부분 수집중

어떤 작품을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적정 인원이 필요한 것이고, 과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필수 조건들을 갖추어 일을 하기엔 열악한 부분이 많아 誤記된 것이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이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라고 보기에 동문 여러분과 관련된 부분이나 광운80년사 전체를 읽다가 잘못된 곳이나 오타가 있어 의미가 퇴색 됐다고 생각되시면 서슴치 마시고 story1919@naver.com으로 연락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모두 모아 정오표를 만들 계획이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완벽한 광운80년사가 정리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 “총동문체육대회 이모저모”



### 2015년 체육대회는 남다른 분위기 속에서

☐...모교 본관건물을 이용해 현수막을 설치했다. 마치 옛날 잔칫집 만장기 걸리듯이 줄줄이 걸려 잔칫집임을 알렸고, 단상 역시 심플하게 꾸며 편안한 느낌이 들게 했다. 앞으로는 정사각형으로 텐트가 가지런히 설치되어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풍겼다. 또한 메인 단상 양쪽에 대형

스크린 설치되어 운동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중계하듯이 스크린에 비춰주고 있어 텐트 안에 앉아서도 진행 상황을 손쉽게 알 수 있었다. 금년 행사는 날씨까지 큰 도움을 줘 운동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힘들 정도로 더웠지만 모처럼 모교운동장에서 운동이라 이마의 땀을 흘리며 즐기고 있었다.



### 매번하느 행사지만 국민의례 만큼은 제대로...

☐...위 사진은 국기에 대한 경례 장면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뒷사람에게 자신이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되어, 그것이 시대를 거치며 여러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경례를 하고 있는데, 경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모자를 쓸 경우와 안 썼을 경우인데, 모자를 쓸 때 거수경례를 하고, 모자가 없을 때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애국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며, 예전에는 오후 6시(하절기) 정각에 국기하강식이 있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멈춰서 왼쪽가슴으로 손을 올리고 국기가 완전히 내려왔을 때까지 국기에 대한 또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이런저런 현실에 쫓겨 내 자신은 물론 주변을 둘러 볼 여유가 없을 경우가 많다. 국기 하강식은 짧은 시간이지만 만감이 교차할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을 떠나 당시의 현실이 그랬다는 것이다. 1989년 초부터 국기하강식을 안 하다보니 관공서마다 걸려있는 태극기도 눈에 안 들어오고 있으며, 기회가 될 때가 그렇고, 뭔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 주관기수 34회의 노고

☐...34회 동문들이 교복 자율화 첫 번째 수혜자란 것을 알렸던 적이 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고, 두발을 짧게 해, 누가 봐도 학생이란 걸 알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나, 학생 교복 자율화로 결정 한 것이다. 어느 쪽이 좋냐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34회의 경우 교복 자율화로 자유분방한 동문들이란 것에는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으니 좋은 결과를 얻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체육대회 기사 난에 웬 교복 자율화에 관한 글이냐고 의아해 할 수 있지만, 34회 동문들이 이번 체육대회를 주관하면서 보여준 결과가 자유분방하면서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 있었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봤을 것이다. 교복자율화가 예기치 않은 곳까지 영향을 줬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본 것이다. 서른한번째 체육대회가 끝나면서 곧 바로 활발히 움직여 준비해 온 동문들이다. 세월호 사건의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했고, 국내 경기까지 안 좋아 협조라는 것이 실종 되다시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녹녹치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고, 깔끔하게 큰 잔치를 정리했기에 찬사를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이다. 큰 잔치를 할 때 약간의 잡음이 생길 수 있다. 1천여명을 모두 만족 시킬 수는 없다. 내용에 따라 허용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규모 행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처사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대회를 주관했다고 평가하고, 그에 따른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서울시내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동문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그럴싸하게 하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매년 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타교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우리 동문들은 총동문회를 뒷받침 하면서 몸과 마음을 모아 훌륭한 대회로 마무리 했으니 34회 박경만 회장을 비롯한 모두가 수고 가 많았던 것이다.



### 류희근 회장의 인사말

☐...한여름 날씨 같았던 체육대회 당일 단상을 비롯한 운동장은 열기로 가득했고, 이를 의식한 류희근 회장은 내빈께 감사의 인사를 짝막하게 하고, 동문들에게도 가볍게 인사를 마쳤다. “우리 4만2천 동문이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다 같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81년 전에 뜻 있는 분이 파 놓은 광운이라는 큰 우물을 우리는 함께 만나 마셔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천일수도 있고,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광운인만의 따뜻한 정이었고, 마치 오솔길

을 가다보면 나뭇가지를 치우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듯이 인연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다보면 나뭇가지를 만나게 되고, 인연을 맺어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지듯이 오늘 이 자리는 다른 때 보다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관계로 서 계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저는 나중에 별도로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회를 마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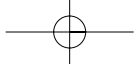
### 불편한 듯 보기 좋았던 모교운동장 활용 얘기

☐...금년 총동문체육대회를 위해 교문을 들어서면서 많은 동문들이 ‘이건 뭐야!’를 한마디씩 하는 소릴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름 아닌 풋살경기장 때문에 하는 소리였다. 풋살(FUTSAL)은 주로 실내에서 5인이 하는 미니 축구 경기를 말하는데, 이 풋살경기장 2면이 운동장에 설치되어 보기에 따라서는 답답함을 주고 있다.

풋살장 일반 규격이 25m~42m, 너비가 16m~25m다. 그런 경기장 2면이 나란히 붙어 있으니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본관 현관에서 바라본 체육대회장 모습은 정사각으로 보기 좋을 정도로 잘 정리되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특히 청색으로 정렬된 각기별 텐트가 가지런히 설치됐고, 운동장에 마련한 단상이 수평을 이뤄 좋았다. <사진:박경만(34회)운영위원장 축사>







**단체줄넘기 우승**

단체줄넘기를 흔히들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다반사지만 생각과 같이 쉽지 않은 것이 단체줄넘기다. 더욱이 여성이 함께 참가하는 혼성 줄넘기는 호흡을 맞춰 장시간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번 단체줄넘기에선 32회가 우승을 했다. 32회는 평균 나이가 어림잡아 계산해

도 50대 초반이다. 부부가 20년 넘게 함께 살았어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다른 부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깡충깡충 뛰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32회가 우승을 했다. 그리고 31회가 준우승을 한 것을 보면, 그 또래가 혼성 단체줄넘기 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이며, 왕성한 체력과 요령을 알고 있는 시기라는 것을 볼 수 있다.

**26회 불바운딩 우승**

이번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불바운딩게임은 10명이 참여하고, 여성 2명이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10명의 남녀 선수들은 원형 도구를 이용하여 탱탱볼을 가장 많이 튕겨 올리는 팀이 우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명의 선수들이 줄을 당겨 장력이 잘 유지 되도록 해야 원형판이 수평을 유지해 공이 수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다시 튕겨져 곧게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이번 대회에 처음 적용하는 게임이라 물을 확실하게 두어 운영했다. 기본 규정이 5분간 연습할 시간을 주고, 3회를 합산해 더한 횟수로 순위 결정했다. 팀웍이 잘 갖춰진 26회가 호흡을 잘 맞추어 경기를 운영한 결과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이기도 하다.

**32회 족구 우승**

이제 족구는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을 만큼 널리 보급되었으며, 가는 곳마다, 단합대회가 있는 곳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족구대회다. 우리 동문들 역시 족구를 빼고 대회를 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듯 정확한 물을 적용해 프로그램에 넣었다. 그러나 매년 우승을 하는 기수는 정해진 듯 50대 초반이 우승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승 역시 32회가 우승을 했고, 준우승을 29회가 차지했다. 족구경기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래서 족구기술이 묘기에 가까울 정도로 갖가지 기술을 보인다. 매년 새로운 기술과 팀웍으로 중무장을 하고 참가하고 있으니, 나이가 많고 아무 대책 없이 참석해 순수한 의미에서 게임에 참석하면 백전백패인 것이다. 따라서 족구는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경기다.

**26회 동문들의 반란 32th 체육대회 종합우승**

2015년도 총동문체육대회는 26회(회장 이내선) 동문들이 반란을 일으킨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체육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동창들이 참석을 했고, 가장 많은 협찬 물품이 모아졌고, 각 종목별 게임에서 고른 실력을 발휘하면서 종합우승까지 거머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쾌거는 저절로 굴러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전·현직 임원들이 뜰뜰 뭉쳐 작전을 펴기에 가능했다는 것인데, 그 작전 내용이 참석자 전원에게 바람막이 점퍼와 부인들에게 영양태크를 지급했으며, 점심식사를 호텔식 뷔페로 준비했고, 생맥주까지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26회 자체적으로 행운권을 발행해 접이식 자전거를 준비하고 행사에 임했다. 이런 내용들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충분한 요인이 되기도 했거니와 보다 효과가 있었던 것은 임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의식을 동창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이다. 대부분 5월은 할 일도 많고, 가야할 곳도 많은 달이다. 여기에 일요일이라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더욱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는 물론이고 이따금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친구들을 흡수해 관심을 가지니 그 효과는 일파만파로 전파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사 당일 집행부가 즐거운 비명 속에서 행사를 마무리 했다는 풍문까지 돌았다. 예년에 참가했던 동창들을 감안해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준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고, 협조해 줄 뿐 아니라 체육대회에 임하는 자세까지 좋아 훌륭한 성적까지 안겨줬으니 참가한 동창 모두가 흥분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준비된 기념품은 물론이고 음료까지 부족했어도 그럴 수 있다는 너그러운 넉넉함까지 생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현지 조달로 채워 나가며 행사를 마무리 했다고 한다.



26회 종합우승

**종목별 우승 결과**

금년 체육대회 결과는 흥팀에서 우승을 했다. 그리고 각 종목별 우승은 이렇다. 족구우승 32회, 준우승 29회, 팔씨름우승 33회, 준우승 30회, 단체줄넘기우승 32회, 준우승 31회, 불바운딩우승 26회, 준우승 32회, 줄다리기우승 흥팀

**시상을 위해 애쓴 주역들**

어느 대회이건 마지막까지 자릴 지키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류희근 회장은 물론 김정채 교장선생님 그리고 김영건 고문과 김기원, 박종원 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 종합우승을 비롯한 준우승과 각 종목별로 우승과 준우승이 있고, 여기에 행운권 추첨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마무리는 은근히 바쁘기도 하고, 조심스런 자리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행사는 끝이 좋아야 모두가 좋은 것이다. (사진 좌로부터 박종원, 김기원 감사, 류희근 회장, 김영건 고문, 김정채 교장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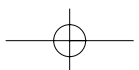
**행운권 추첨의 대상은?**

금년도 행사의 마지막 장식을 알리는 행운권 추첨을 위해 일천여장이 들어있는 함속으로 류희근 회장의 손이 들어가는 순간 주변은 정적이 감돌 정도로 조용했다. 그리고 번호가 호명 되면서 두 손

을 번쩍 드는 이가 있었으니 17회 최해혁 동문이었다. 모두가 축하 해주는 세리모니 속에 마지막을 장식했고, 50" 삼성칼라텔레비전 행운의 주인공이 결정 되면서 총동문체육대회 행사가 아무 탈 없이 끝을 맞이했다.



26회 참가자 일부가 사진촬영에 참여했다





## 〈기획취재〉

**가쪽모임보다 더 강한 끈끈함이 스며든 모임**

흔히들 서로 거리를 두고 터놓지 않는 속마음을 우리는 隔意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단어와 관련하여 친근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를 격의 없이 지낸다고들 한다. 지난달 11일 충주·제천지역동문회(회장 윤문병, 23회) 모임이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857번지 '선유동 숲터'에서 있었다. 괴산지역 모두가 청정지역이지만 특히 선유동 숲터(www.sunyudong.com)가 있는 마을은 사방으로 병풍이 둘러친 듯 아늑한 분위기에 황토로 지은 너와집이 웅기중기 자리 잡고 있으며, 아침이면 햇살 가득 비치는 청정지역 중의 청정지역이다. 노후 생활을 위해 전국을 상대로 보물찾기를 하듯이 물색해 찾았다는 18회 박내운 동문이 귀농생활을 하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펜션이다.



해질 무렵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동문들, 주변이 어둑해질 때쯤부터 야외 식사 자리가 급조 됐고, 자리를 잡고 앉은 동문들을 상대로 윤문병 회장이 소개를 하며 인사를 했다. 14회 송춘섭, 18회 강상경, 박내운, 유종렬, 19회 박양근, 장병집, 22회 강우정, 23회 유인기, 윤문병, 25회 변상근, 안승한 동문이 참석했으며, 동문들 대부분이 부인과 함께 참석해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했으며, 조금 늦게 도착한 30회 정준수 동문과 류희근 총동문회장이 참석했고, 모임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편집출판위원장 권경택(21회)이 동참했다. 1980년부터 모임을 시작해 최근엔 제천지역까지 통합해 정기적인 모임을 해서인지 강우정 동문 부인은 '얼굴을 볼 수 있어 좋은 모임이다.'라고 평가했다.

**늘 한달음에 달려와**

충청북도는 강원도와 비슷한 지형을 갖고 있어 같은 행정구역이라고 해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갈 수 있는 어려운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천에서 괴산까지의 거리는 서울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충주·제천지역 동문들은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날짜와 장소가 결정이 되면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마인드로 접근**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충주·제천지역동문회 수장격인 송춘섭 동문부터 기본 생각이 달랐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별을 떨어뜨린다는 긍정의 힘을 동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수장의 기본 생각에 영향을 받은 듯, 전염된 듯 모두의 생각이 한결 같았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어**

충주·제천지역동문회 회원으로 참석하는 동문이 현재 20여명에 이른다. 한때는 30여명에 이르렀던 때도 있었지만 타지로 떠났거나 타계한 동문이 발생하면서 줄어들었다고 한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어 동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노크하면 된다. 아버지 같은 형님에서 자식 같은 아우로 구성된 지역동문회의 분위기에 매료 될 것이다. 회장 윤문병 010-2481-0246 총무 변상근 011-482-2730

**'정말인감요~'**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대학 총장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다면 토목으로 다뤄져야 될 기사거리다. 하지만 충주·제천지역동문회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장병집(19회) 동문의 얘기다. 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코스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금은 굴삭기를 이용해 농지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강을 하고 있는 동문이 여럿 있다. 대표적인 동문이 장병집 동문이지만 현재는 퇴직한 상태고, 송춘섭(14회)동문이 아직도 교양학부에서 '창조적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으며, 박양근(19회)동문도 사회과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강우성(22회)동문도 항공운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한때는 총장대행을 맡기도 했다.

**대학총장 출신이 굴삭기기사, 대학에서 열강하는 동문들, 지역 곳곳에서 봉사도.**

18회 박내운 동문은 부인이 인천에서 농협 금융부에서 오랜 기간 지점장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부부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운동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만 잘 지켜나가도 아주 큰 성과가 있다고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쓰레기를 분리 처리하고, 물의 낭비를 막고, 생활하수 발생을 줄이고, 세계 오염과 남용을 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위반하지 않으며, 가까운 거리는 걸거나 자전거를 이용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사말로 대신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단숨에 달려온 동문들을 위해 박내운, 유종렬 동문이 모든 것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으며, 강상경 동문의 리더십으로 6월 모임은 훌륭히 마무리됐다.

**서로를 아끼며 퍼모스트사랑을 주고받는 동문들,  
신형제보다 더 가까이, 더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  
자연을 벗 삼아 너그러움을 늘 선사하고 있는 동문들로,  
모두가 진정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 몸으로 느껴지는 동문회...**

**깨주와 띠를 떨치고,****징한이어가기 하는 사랑방**

사회생활로 인연을 맺은 대다수의 모임은 대개가 상하관계이거나 이해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포근한 감정이나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느낌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충주·제천지역동문회의 느낌은 다르다는 걸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오로지 동문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장군도 총장도 고위직도 없었다. 오로지 동문 선후배일 뿐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질서에서 조금씩 이탈을 한다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 모르는 척 넘기고 껄껄 웃음으로 넘긴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에 무엇이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잘 읽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들 상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누구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 상대를 잘 안다는 것은 관심이 많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곳 동문들은 모두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으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충주·제천지역동문회 동문들은 마치 칭찬릴레이라도 하듯이 서로의 좋은 점만 부각 시켜 상대를 존중하고 있었다. 정말로 아름다운 광경이 연출되는 분위기에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었다. 윤문병 동문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을 때, 형제도 안 서준다는 보증을 서주기 위해 장병집 동문이 손을 꼭 잡고 은행으로가 보증을 서주겠다던 얘기가 있었고, 장병집 동문이 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 우연찮게 윤문병 동문이 운영하는 '동궁한과'를 지나다가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일이 바쁜 상황을 보고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일을 도왔고, 이 광경을 보고는 총장을 수행하던 두 사람도 일을 함께 도왔다는 얘기가 있어 모두가 감명을 받은 듯 분위기는 더욱 다정다감해지면서 이야기 꼬리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나가면서 초여름 밤은 깊어만 갔다.



## 1965년 졸업 금년이 50주년 질순맞이 행사도 겸해

13회 동문들은 나라 정국이 어수선 하고, 안정이 안 된 분위기에서 공부를 했고, 졸업을 한 세대다.

4·19와 5·16 정변을 지켜보기도 했고,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도 보면서 쓴맛과 단맛을 모두 봤지만 비중을 가리자면 쓴맛 쪽이 훨씬 더 크기에 5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온 동질감을 느끼기에 하찮은 말 한마디에도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분위기로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요즘 13회다.

지난 총동문체육대회에서도 많은 동창들이 참석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고, 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흔히들 잘나가는 동창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모임의 핵심 멤버에 속한 사람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어야 잘나가는 동창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13회 동창회가 그런 형태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핵심멤버들이 기초 골격을 탄탄하게 만들었고, 탄탄하게 구성된 골격 위에 훌륭한 건축을 하는데, 현재 동창회를 꾸려나가는 양준석 회장과 성진모 총무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매사에 깊은 관심을 담아 사랑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그래서 동창회 분위기가 푹푹 뭉치는 형태를 갖춰가고 있으며, 70살을 맞이한 분들답지 않게 정열을 불태우며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못 말리는 동문들로 평가되는 것이다.

추억은 아름다워야 남들 앞에서 또는 당사자 앞에서 얘기하고 싶을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삶에 힐링을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늘 고민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13회 동문들이 선구자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에 우리는 결눈질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매사 소소한 것에서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에 말이다.

## 13회 동문 '질순맞이' 기념행사 줄줄이



### 양준석 회장의 체육대회 관련 감사 인사글

13회 동문들은 모두 320여명으로 알고 있다. 그중 외국으로 나간 동문과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연락이 두절 되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창들을 제외한다면 20% 이상의 동창들이 매회 만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 어디서나 쉽게

### 카페는 늘 정이 넘치고 있다 <http://cafe.daum.net/kw1965>

13회 동문들은 모두 320여명으로 알고 있다. 그중 외국으로 나간 동문과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연락이 두절 되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동창들을 제외한다면 20% 이상의 동창들이 매회 만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동창이 70명을 넘어섰고, 그중 절반이 매일 방문해 다양한 소식이나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는 정보는 13회 또래들이 느끼기에 충분할뿐 아니라 공감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많은 동창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 2015년은 기념행사 줄줄이 이어지는 해

13회만의 금년도 행사를 꼽자면, 첫 번째로 신년회 참석하는 것을 필두로 졸업50주년이 있었다. 그리고 총동문체육대회에 동참하고, 동창들끼리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산행하는 행사에 의미를 두고, 가을에 있을 질순기념 행사로 이어진다. 만남이란 자주 만날수록 정이 깊어진다고 한다. 더 이상 명분이 없어 만날 수 없다는 것이 13회의 이유 있는 투정이다.

### 질순기념 가을 아유회 계획

13회는 졸업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대다수의 동창들이 질순이다. 질순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어떤 규율이나 법도·제도·원리 등을 벗어나지 않는 나이라고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든 일정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니,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聖人之道'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70세가 되면 '七旬' '古稀' '稀壽' '從心' 이라 이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활력증진과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정을 더욱 돈독히 맺어 나가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엔 일률적으로 거두는 회비가 없으며, 뜻이 있는 동창들이 자발적으로 쾌척하는 기금과 그동안 적립된 기금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 2015년10월14일(수) 포천 '수중궁갈비마당' 에서

동창들 이동 편의성을 위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대형버스가 아침 9시에 출발해 몇 곳을 경유해 10시 반 경에 포천 '수중궁갈비마당' 에 도착하고, 이때부터 두어 시간 몸 풀기 운동을 겸한 게임을 한다. 게임은 나이에 걸맞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며 흥미 위주로 전문 사회자가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게임이 끝나면 바로 점심 식사를 두 시간 가량 갖고 인근의 산정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가을 산행의 풍경을 둘러보고, 허브야생화 마을을 관람한 다음 행사를 마무리하고 귀경길에 올라 오후 6시에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다소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본다.

13회 동문들의 야심찬 계획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원을 보내는 것도 일조하는 방법일 것이다.



# 개나리 광장

## 미국, 뉴욕동문들의 수상한 움직임

■ 미국 뉴욕은 북동부, 뉴욕 주의 남쪽 끝에 있는 도시다. 뉴욕 주와 구별하기 위해 뉴욕시라고 부르기도 하며,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 하나라고 한다. 이곳에 터전을 두었거나 머물고 있는 동문들이 여럿 있는 것이 아름답게 알려지면서, 최근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정보가 있었다. “머나먼 타국 이국땅에서 살아가면서 선후배와 잠시 만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오송열(23회) 동문 애기다. 이곳 동문 누구나 공감하는 얘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십전심으로 몇몇 동문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다보니 항상 아쉬운 여운이 남았고, 이래선 안 되겠다는 마음에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김명국(21회)동문을 중심으로 1차, 2차...로 횡수를 늘려가며 모임을 갖고, 뉴욕 및 뉴욕 인근에 살거나 장기 체류하고 있는 동문들을 수소문해, 그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새로운 정보나 동문으로서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기별이 있었다. 현재 20여명의 동문 소재가 확인 되어 연락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미동부지역 동문들 소재를 일일이 파악해 동문모임을 갖고, 고국에 대한 향수를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이국에서 잘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의 느낌만으론 결과가 좋다는 것이 몇몇 동문들의 호평이다. 그동안 만나면서 나눴던 의견을 취합해 공통분모를 찾아 미국동부지역모임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 따뜻한 손과 가슴을 가진 남자 차한수 동문

■ 흑자는 소리 소문 없이 기부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을 기부천사라 부른다. 또한 기부하는 길은 여러 형태가 있으며,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7가지나 있다고 하는 불교의 無財七施가 있는가하면,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구절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남을 돕거나 선행을 할 경우,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할 수 있기도 하거니와 선행은 누구보다도 본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세상에는 자신의 어썩잖은 일을 크게 포장해서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에 나온 말일 것이다. 그러나 차한수(14회)동문은 남다른기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無財七施를 모두를 갖

추고 암암리에 선행을 하고 있기에 이번 32회차 체육대회에서 학교장(교장 김경채)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이다. 남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 야말로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 하는 것이기에 다시 한 번 선행의 의미를 곱씹어 보게 만든다. 차한수 동문은 모교발전과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큰 관심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소외된 공간을 찾아다니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기여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동문으로 비춰지는 것일 것이다.



## “광운골프동호회장배 순계골프대회”

우승 정응용(19회)  
준우승 정덕진(19회)

■ 지난 6월 19일 광운골프동호회장배(회장, 양인석, 29회) 순계골프대회가 양인석 회장을 비롯한 류희근 총동문회장 내외분 및 김영건 고문 등 동문 가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 음성에 위치한 진양밸리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양인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동문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추계골프대회도 더욱 알차게 준비해 참가하는 동문과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메달, 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외에 다버디, 다과, 다보기, 다타 등 총 8개 부문 개인전으로 치러졌으며,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후원으로 다수의 수상자를 선정하느라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행사 진행은 차기 골프동호회장으로 내정된 김병현(30회)동문이, 사회는 총동문회 사무차장 서승수(33회)동문이, 시상에는 류희근 동문회장과 김영건 고문께서 수고하였다. 우승은 정응용(19회)동문이 차지했고, 준우승은 정덕진(19회)동문, 메달은 서영원(34회)동문, 롱기스트는 박병훈 동문, 니어리스트는 유해동 동문이 트로피와 34회에서 기증한 에이밍기를 수상했다. 또한 다버디 윤태근 동문,

다과 김영건 고문, 다보기 김일수 동문, 다타 변성오 동문이 차지했으며, 31회 정지인 부회장이 기증한 상품권을 상품으로 수여했다. 최다참가 우승은 29회가, 최다참가 준우승은 31회가 수상했으며, 행운상은 22회 김진우 동문이 차지했다. 2012년부터 월례회를 시작한 골프동호회는 올해는 동호회장배 순계골프대회가 개최된 진양밸리CC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매달 5팀에서 8팀까지 진행하고 있다.

## 광운등산학교 9기' 졸업

■ 광운등산학교(교장, 임철원, 22회)에서는 5월30일 제 9기 졸업식을 겸한 등반대회를 북한산 인수봉에서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3월29일부터 시작한 9기생들은 5회에 걸쳐 등반에 필요한 기본이론 및 실습을 거치면서 체력을 단련해 왔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5명이 졸업을 하게 됐으며, 졸업자는 광명화 민광열 임창순 장성희 최명순이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30여명의 동문들은 5명 또는 6명씩 6개조로 나누어 등반을 하면서 시범을 보이기도 했고, 등반 자세를 꼼꼼하게 숙지시키며 자상함도 보여줬다. 졸업식을 겸한 대회가 끝나고 모든 참가자들은 도선사 인근에 있는 선운산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행사를 가졌다.



등산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자와 강사진이 등반 후에 기념촬영을 했다.



32회차 총동문체육대회 결산보고회의

총동문회 운영은 동문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업은행 388-084734-01-017 SC은행 459-10-000999 광운총동문회]